

說經『さんせう太夫』의 가족 이데올로기 고찰

이 용 미*

目次

- I. 서론
 - II. 본론
 - 1. 正氏-관념적 권위
 - 2. 御台所-좌절된 母性
 - 3. 安壽の姫-美徳의 구현
 - 4. つし王丸-집안 재건의 주체
 - 5. 가족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
 - III. 결론
-

I. 서론

일본의 중세 말에서 근세 초, 전성기를 구가하던 가타리모노(語り物)인 셋쿄(説経)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이른바 ‘가족 일대기의 서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¹⁾ 예를 들어 가타리테(話者)인 셋쿄시(説経師)는 출가한 아버지를 둔 가족의 이별과 재회(『가루카야(かるかや)』), 딸의 인신공희 효행(『마쓰라노초자(まつらの長者)』), 신불에게 치성을 드려 태어난 아이(申し子)의 고난과 출세(『신토쿠마루(しんとく丸)』·『아이고노와카(愛護の若)』), 누이의 희생과 남동생의 영화(『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 등의 이야기를 本地譚의 구성으로 엮어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강의 줄거리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셋쿄(説経)에 있어 가족 서사의 출발점은 갑작스러운 불행에 맞닥뜨린 가족 구성원의 이별과 그로 인한 가족의 해체에 있다. 다시 말해 일련의 이유로 말미암아 공동 거주, 자녀의 양육과 보호,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회성 함양, 정서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충족 등, 가족의 순기능이 와해된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은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사회에 재편입되는가하는 점이 셋쿄(説経)의 중심 테마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 역시 지방 무사인 이와키관관 마사우지(岩城判官正氏) 일족의 몰락과 재흥을 다룬 작품으로 간에이(寛永) 16년(1639년)에 간행되었지만 이야기의 유포 시기는 중세 시대로 추측된다.²⁾ 이후 이 작품은 셋쿄(説経)만이 아니라 오토기조시

* 한국의국어대학교 강사 일본고전문학

1) 室木弥太郎씨는 説経의 대표적인 작품으로『가루카야(かるかや)』『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신토쿠마루(しんとく丸)』『오구리(をぐり)』의 네 작품을 들고있다(室木弥太郎『説経集』新潮古典集成,1977.p.414)

2) 牧英正『人身賣買』岩波書店,1971.p.44.

(お伽草子), 조루리(淨瑠璃), 가부키(歌舞伎)를 거쳐 근대에는 모리오가이(森鷗外)의 역사 소설로 재생산되는 등, 시대를 초월하여 꾸준한 인기를 얻은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를 둘러싼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생명의 소생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덴노지(天王寺)의 기능 및 가치를 살펴봄으로서 공동체 사회에 있어 개인의 종교적 구제 양상을 논의하는 연구³⁾, 혹은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 일가와 마사우지(正氏) 일가의 대비되는 흥망성쇠의 구조를 중앙과 변경의 세력권 충돌로 파악하는 연구⁴⁾ 흐름을 보인다. 그런데 가타리테(話者)는 가족의 해체와 집안 재건이라는 테마를 서술함에 있어 가족 구성원의 역할 내지 이미지를 고정시키고 존재성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위상 및 가족과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중심으로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가 추구하는 ‘가족 이데올로기’ 양상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가족은 모름지기 이리이러한 모습이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당위 내지 도덕의 의미로 사용하고자한다.

II. 본론

1. 正氏— 관념적 권위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에서 아버지인 이와키마사우지(岩城正氏)는 함께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거나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실체를 갖지 않는 관념적 존재라 할 수 있다. 덧붙여 이야기 전개에 있어 아버지의 직접적인 대사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존재감을 가늠할 만한 정보는 가타리테(話者) 및 주변 인물의 간접적인 서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하,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마사우지님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집 세고 완강한 성품으로 인해 쓰쿠시의 안라쿠사로 유배당하시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正氏殿と申すは、情のこはいによつて、筑紫安樂寺へ流されたまひ、憂き思ひを召されておはします。)⁵⁾

「네 아버님이신 이와키님은 지난날 천황께서 거쳐하시는 황거를 경호하던 중 저지른 불찰의 죄과로 쓰쿠시의 안라쿠사로 유배당하시어 고초를 당하고 계신다(御身が父の岩城殿は、一年みかどの大番調へさせたはぬ御罪科に、筑紫安樂寺へ流されて、憂き思ひしておはします。)」

첫 번째 예문은 이야기의 모두 부분에 위치한 가타리테(話者)의 설명이고 두 번째 예문은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온 아들이 어느 날 새삼스러이 아버지 부재의 이유를 묻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어머니의 대답이다. 이 두 문장은 아버지인 이와키마사우지(岩城正氏)가 고케닌(御家人)으로서 궁정 수호에 임하던 중, 일련의 과실을 저지르고 그 죄과로 유배를 당한 상태임을 알려준다. 그런데 「고집 세고 완강한 성품(情のこはい)」이라는 표현이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에 반발

3) 岩崎武夫『さんせう太夫の構造』『さんせう太夫考—中世の説経語り—』平凡社, 1973.

4) 鳥居明雄『再會のトポロジー』『漂泊の中世』ぺりかん社, 1994.

5) 이하 본문 인용은 『説経集』(新潮日本古典集成, 新潮社) 所收 『さんせう太夫』에 의한다.

하는 마사우지(正氏)의 완고한 태도를 암시하는 것이라면 그의 유배는 결국 궁정으로 상징되는 중앙 권력에 맞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결과임을 짐작케 한다. 즉 「大番不調의 죄과란 곧 마사우지(正氏)의 정치적 실각」⁶⁾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마사우지(正氏)의 부재적 성격은 說經『가루카야(かるかや)』에서 가족을 버리고 출가한 아버지인 시게우지(重氏)의 위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루카야(かるかや)』의 시게우지(重氏)가 부귀영화와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이에 대한 허망함을 느끼고 스스로 현세, 즉 제도권을 버린 인물임에 비해 說經『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의 마사우지(正氏)는 제도권에서 버림받은 인물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요컨대 마사우지(正氏)는 과실과 그로 인한 정치적 실각으로 오슈의 쉰넷 고을(奥州五十四郡)의 총령(總領)으로서의 권력을 잃었고 그로 인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남은 가족 구성원마저 생존이 위협 당할 처지에 놓이게 만든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부재이기에 오히려 더 절대적인 권위로서 남은 가족 구성원들의 운명을 구속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2. 御台所—좌절된 母性

2.1. 현실 인식의 괴리

다음으로 어머니인 미다이도코로(御台所)는 남편의 부재라는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나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다이도코로(御台所)는 아들이 어느덧 커서 직접 천황에게 아버지의 사면을 탄원하고 영지의 소유권을 되찾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를 대견히 여기고 아들의 소원대로 남매를 데리고 상경 길에 오른다. 그녀가 험난하고 고단한 상경 길을 결심한 데에는 아버지의 유배로 인해 장차 사회적인 정체성에 타격을 입을 위험에 놓인 자녀들을 구하기 위한 모성이 밑바탕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야기 전개로 볼 때 미다이도코로(御台所)는 자녀를 보호하는 모성의 구현자라는 측면보다는 그 동안 武家の 안주인으로서 비교적 평안한 생활을 누려온 반면, 상황 파악이나 위험에 대처하는 등의 현실 판단력이 미흡한 인물로 조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고향을 떠나 여러 날이 지난 후, 에치고의 나오이 포구(越後國 直江の浦)에 도착한 일행은 하룻밤 묵을 곳을 찾지 못해 곤란을 겪게 되는데 미다이도코로(御台所)는 이러한 상황을 「참으로 범부의 마을이구나, 하룻밤의 잠자리조차 인색하게 굴다니 서글픈지고(さても凡夫世界のこの里や。一夜の宿を貸さざることの悲しさよ)」라며 한탄한다. 그런데 여기서 타향을 범부의 세계로 표현한 대사에서는 미다이도코로(御台所)의 특권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즉 그녀는 자신들 일행이 타인의 눈에는 단지 남루한 나그네의 모습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고귀한 신분인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마을 주민들을 미망과 어리석음에 휩싸인 자들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영락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의 부족은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미다이도코로(御台所)는 인신매매를 업으로 삼는 야마오카다유(山岡太夫)의 거짓 친절을 간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자비로운 다유(慈悲ありさうなる太夫)」로 신뢰하고 아래 예문과 같이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노출시킨다.

6) 鳥居明雄「再會のトポロジー—「さんせう太夫」論」『漂泊の中世』ペリかん社,1994.p.29

「자 보시오. 여기 웅크린 도련님이야말로 장차 오슈 원 네 고을의 주인이 될 몸이라오. 지금은 뜻밖의 청원 때문에 상경하지만 이윽고 천황께 소령 안도의 어의를 받잡고 고향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 다투에게 그 어떠한 보답도 아까울리 있겠소(あれあれ御覽候へや。これに伏したるわつばこそ、奥州五十四郡の、主とならうず者なるが、さて不思議なる論訴に、都へ上り、帝にて安堵の御判を申し受け、本地に返るものならば、やはか太夫殿に、切に施料が惜しかるべきか。)」

즉 그녀는 하룻밤의 잠자리를 얻기 위해 장차 오슈의 총령이 될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의 자부심과 천황의 인준에 대한 낙관을 지나치게 피력한 결과 오히려 보호자도 없는 아녀자와 어린 남매만의 여행이라는 허점을 상대에게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한편 야마오카다유(山岡太夫)의 부인은 자신의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미다이도코로(御台所)에게

「저, 마님. 이야기나 드릴까하고 찾아보였습니다. (중략) 저 다투라는 작자는 일곱 살때부터 사람 장사 배를 타던 이로 인신매매에는 도가 튼 사람이외다. (중략) 모쪼록 조심하십시오(いかにじょうらふ様。御物語に参りたよ。(中略)あの太夫と申すは、七つの時よりも、人買ひ船の相櫓を押し、人賣りの名人なり。(中略)それとても油断な召されぞ。)」

라며 그를 경계할 것을 충고하지만 그 보람도 없이 미다이도코로(御台所)는 편안하고 빠른 상경길을 주선해주겠다는 야마오카다유(山岡太夫)의 제안을 믿고 따른 결과, 일가족은 결국 두 명의 인신매매 중개인에게 각각 나뉘어 팔리게 된다. 말하자면 미다이도코로(御台所) 본인과 두 남매의 비극은 어머니의 미흡한 현실 판단이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미다이도코로(御台所)는 야마오카다유(山岡太夫)를 자신들을 보호해 줄 자비로운 인물로 믿고 의지하였지만 그에게 있어 미다이도코로(御台所) 일행은 단지 자신의 생계를 위한(「속여 팔아 봄 한철을 지내야지(たばかり賣りて、春を過ぎせう)」) 이용 가치(「옹거리, 때마침 좋은 장사거리로군(あつぱれ切れ目の商ひかな)」)로 인식될 뿐이었다. 또한 武家 여성으로서 갖춘 그녀의 우아한 교양은 인신매매로 팔려간 곳에서는 더 이상 미덕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재주가 없네 기술이 없네 하며 발목 힘줄을 자르고 하루 한 흡만으로 연명하며 새쫓는 일에 내몰렸습니다(能がない職がないとて、足手の筋を切つて、日に一合を服して、粟の鳥を追うておはします)」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런 기술도 갖추지 못한 쓸모없는 존재로 간주되어 비인간적인 대우와 비천한 노동에 혹사당하게 된다. 이처럼 이야기 전개에서는 미다이도코로(御台所)의 사회 인식과 사회의 그녀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서술함으로써 그녀가 자녀 보호라는 모성의 구현과 나아가 가문의 재건이라는 지상 과제 앞에서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2. 자녀에의 구속 기제

이윽고 미다이도코로(御台所)의 무능력과 야마오카다유(山岡太夫)의 계약으로 인해 미다이도코로(御台所)와 하녀는 에조가시마(蝦夷が島)로, 두 남매는 단고(丹後國)로 향하는 배에 올라 팔려가게 되는데 뒤늦게 사태를 알아차린 미다이도코로(御台所)는 남매를 태운 배를 향해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누이가 지닌 것은 지장보살로서 만약 남매의 신변에 큰 일이 생기면 몸소 위험을 대신해주실 지장보살이니 부디 정성들여 받들거라. 동생이 지닌 것은 오슈 소령의 족보로 죽어서 명도에 당도해 염라대왕님께 진상해도 부끄럽지 않을 물건이란다. 절대로 잃지 말거라, 쓰시오마루. (姉が膚に掛けたるは、地藏菩薩でありけるが、自然きやうだいが身の上に、自然大事があるならば、身代わりにもお立ちある、地藏菩薩でありけるぞ。よきに信じて掛けさいよ。又弟が膚に掛けたるは、志太・玉造りの系図の物。死して冥土へゆく折りも、閻魔の前のみやげにもなるとやれ。それ落とさいな、つし王丸)」

여기서는 평소 어머니가 누이에게는 지장보살을 남동생에게는 집안의 족보(계보)를 간직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자녀가 달성해야만 할 의무에 대한 어머니의 지향 내지 의도를 보여 준다. 다시 말해 대속(代贖)의 영험을 띤 지장보살의 소지는 곧 딸의 혈연자에 대한 보호 내지 희생 의무를, 내세에까지 통용될 권위를 지닌 족보(계보)의 소지는 아들의 부권 승계와 가문의 존속 의무를 암시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이 대목에 이르러 가타리테(話者)는 기키테(聽者)로 하여금 가부장의 부재에 뒤이은 어머니의 무능력 내지 무력함으로 인해 절대적인 절망에 직면한 남매의 앞날과 가족의 운명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즉 철저히 해체된 집안의 재건이라는 과제는 오롯이 어린 두 남매의 몫으로 남겨진 것으로 과연 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완성해나가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전개될 서사 구조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위의 예문에서 드러난 어머니에 의한 자녀 운명의 구속 의도는 향후 남매의 운명 혹은 역할에 대한 밑그림 내지 복선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安壽の姫—美徳의 구현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셋쿄(説經)『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서사의 중심 축은 한마디로 누이의 희생과 남동생의 출세라고 할 수 있다. 즉 누이인 안즈노히메(安壽の姫)는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가에서 남동생인 쓰시오마루(つし王丸)를 탈출시킨 대가로 고문사하는데 남동생의 탈출은 곧 그의 출세와 아버지의 사면, 어머니의 개안, 가족 재회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이야기 전개에서 안즈노히메(安壽の姫)의 죽음은 남은 가족의 행복과 가문 재건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장엄하고도 숭고한 희생으로 자리매김 되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해피엔드의 결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즈노히메(安壽の姫)가 자신의 운명으로서 자사회생(自死犠牲)을 받아들이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자사회생의 당위성을 내재화하게 되었는가, 또한 서사 구조 안에서 그녀가 지닌 이상적인 미덕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3.1. 강인한 현실 적응력

가타리테(話者)는 어머니와 남동생의 현실 인식 내지 행동과 안즈노히메(安壽の姫)의 그것을 대비시켜 논의함으로써 그녀의 강인한 현실 적응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먼저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와의 첫대면에서 안즈노히메(安壽の姫)는 고향과 이름을 묻는 산쇼다유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저희 남매는 다테 고을 시노부 사람으로 삼월 열이레날 우연찮게 고향을 떠났사운데 기막힌 설움 중에 곰곰 헤아려보니 에치고의 나오이 포구에서 처음 팔린 이후 다투님이 일흔 다섯 번째 주인이 되십니다. 여기서는 물건으로 저기서는 장삿거리로 불리며 변변한 이름조차 없나이다. 부디 적당한 이름을 지어 부려주십시오, 다투님.(それがしきやうだいは、伊達の郡信夫の莊の者でござあるが、國を三月十七日に、事かりそめに立ち出でて、越後の國直江の浦から賣り初められ、それがし余りの物憂さに、靜かに數へてみてあれば、この太夫殿までは七十五てんに賣られたが、あなたにては代物よ、こなたにては商ひ物よとこそ申したれ、つひに定まる名もござない。ただよき名を付けて、お使ひあれや太夫殿)」

위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안즈노히메(安壽の姫)는 영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신분의 권위에 집착하던 어머니와는 달리 자신들 남매가 사회에서 노동력을 갖춘 상품 가치로밖에 인식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따라서 그녀는 이름을 묻는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에게 자신들이 이름대신 그저 '물건, 장삿거리(代物, 商い物)'로 불리어왔음을 상기시키며 새로운 명명을 의뢰한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곧 무가(武家)의 신분이 현실에서 아무런 효용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자각과 더불어 충실한 고용인으로 행동함으로써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의 신임을 얻고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의 생존을 도모함이 유리하리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고된 노동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의 동정에 의지하려 할 뿐 스스로 노동하려 들지 않는 남동생과는 달리 안즈노히메(安壽の姫)는 처지에 대한 서러움을 억누르고 부과된 노동량을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한다.⁷⁾

한편 뒷날 탈출 계획이 탄로 나서 안즈노히메(安壽の姫)의 긴 머리채가 잘리는 수모를 당하자 남동생인 쓰시오마루(つし王丸)는 비탄에 잠기나 정작 본인은 다음과 같이 동생을 위로한다.

「머리카락도 시절 좋을 때 이야기. 지금에 와서는 머리도 외모도 다 부질없는 것. 이렇게 우리 남매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산에 가는 일만도 다행이구나(世が世の折の髮形。かくなりゆけば髪も形もいらぬもの。きやうだい連れ立ちて、山へゆくこそうれしけれ)」

즉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여성미의 상징이기도 한 머리카락에 연연해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사치라 생각하며 오히려 그로 인해 남매가 헤어지지 않고 같은 곳에 함께 사역됨으로서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3.2. 탈출의 당위성

지금까지 살펴 본 안즈노히메(安壽の姫)의 강인함으로 미루어보아 그녀의 탈출 결의가 단순히 가혹한 노동력 착취에 대한 반발에 기인된 것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줄곧 강인한 정신력으로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던 안즈노히메(安壽の姫)가 애써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할 각오로 남동생의 탈출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심적 동인은 무엇이었는지 다음의 예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고향에서는 금기나 부정탄 사람을 초막에 가둔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더러울 것도 없고 부정

7) 「あらいたはしやな姉御様。もすそは潮風、そでは波にしよぼぬれて、潮をくんでおはします」
本文 p.102.

타지도 않은 사람을 초막에 가두는 것은 단고의 풍습이라더냐. 자, 내 말 좀 들어보렴 쓰시오마루. 다유님 밑에서 일하는 것도 더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다. (중략)누나에게 작별을 고향 필요도 없이 산에서 곧장 달아나거라.(我らが國の習ひには、忌みや忌まるる者をこそ、別屋に置くとは聞いてあれ。忌みも忌まれもせぬものを、これは丹後の習ひかや。やあいかにつし王丸。この太夫殿に、遂げての奉公はなるまいぞ。(中略)姉にいとまを請はずとも、山から直ぐに落ちさいよ。)」

위의 예문은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에게 격리 수용된 직후, 안즈노히메(安壽の姫)가 쓰시오마루(つし王丸)에게 처음으로 탈출을 강권하는 대목이다. 사실 그녀로 하여금 남동생의 탈출을 결심하게 만든 단초는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의 몰인정한 명령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정월 맞이에 즈음하여 「늘 울상을 짓고 있으니 새해에 불운을 가져오는 게 아닐까(いつも泣き顔をしてゐるものならば、一年中の物ふの悪いことにてはあるまいか)」라 하여 평소 남매의 어두운 표정이 신년의 복을 물리치는 불길한 징조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을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켜 초막에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조치한다.

그런데 위의 예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심경 표현은 불길한 존재로 인식된 것에 대한 분노와 치욕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안즈노히메(安壽の姫)는 비록 노예와 다름없는 가혹한 노동은 감내해 왔지만 하닌(非人)이나 병자 등, 이른바 불가촉천민들에게나 해당될 격리 수용을 지시함으로써 자신들을 부정시(不淨視)하고 터부의 대상으로 만든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의 행위에는 비분강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즈노히메(安壽の姫)는 평소 현실에서의 효용성과는 상관없이 武家로서의 자존을 소중히 여겨왔으며 그녀에게 있어 이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가치였던 것이다. 따라서 자존의 훼손과 모멸감은 곧 남매의 존재성과 직결되는 것이며 탈출이란 이러한 굴욕감에 대한 항거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 윤리 도덕의 내재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야기 전개에 있어 탈출 기획은 武家로서의 자존에 대한 자각과 항거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탈출을 둘러싸고 남매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즉 아래 예문에서 보이듯이 남동생인 쓰시오마루(つし王丸)는 탈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누이인 안즈노히메(安壽の姫) 자신은 스스로 탈출을 포기하고 있다.

「셋, 조용히, 누님. 요즘은 바위에 귀가 있고 벽도 말을 하는 세상이라고. 만약 이 사실을 다유 일문이 듣기라도 하면 장차 나는 어찌 된단 말이오. 도망치고 싶으면 누이 혼자 도망가시오. 나는 절대 도망치지 않을 테니까.(なうなう、いかに姉御様。今当代の世の中は、岩に耳、壁の物言ふ世時なり。自然このことを、太夫一門聞くならば、さて身は何となるべきぞ。落ちたくは、姉ばかり落ちたまへ。さてそれがしは落ちまいよ。)」(쓰시오마루)

누이는 이 말을 듣고 「나 하나 도망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여자에게 가문은 없지않든. 또 너는 대대로 집에 전해내려오는 족보를 지니고 있으니 언젠가는 세상에 나가야만 될 것이다(姉御この由きこしめし、「自ら落てうはやすけれど、女に氏はないぞやれ。又御身は、家に伝はりたる、系図の巻物をお持ちあれば、一度は世に出でたまふべし」)(안즈노히메)

위의 대화는 두 남매의 현실 인식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여준다. 쓰시오마루(つし王丸)는 자신의 탈출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누이의 심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탈출 계획이 탄로 났을 경우, 자신에게 닥칠 위험만을 걱정하고 있다. 반면 안즈노히메(安壽の姫)는 자신이 남아야 하는 이유, 다시 말해 희생의 선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여자에게는 가문이 없다(女に氏はないぞやれ)」라는 가치관에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현실 인식과 상황 해결 방식은 그 인물이 지닌 가치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은 그가 속한 사회 집단의 윤리와 개인의 자아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자는 동화나 갈등의 형태로 표면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즈노히메(安壽の姫)의 경우,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여자에게는 가문이 없다(女に氏はないぞやれ)’라 하여 가문 내에서 여성의 존재 가치를 배제하는 남성 중심의 혈족 의식을 그대로 자아 가치로 내재화시키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녀 내면에는 스스로 탈출하여 살아남고자 하는 자아 욕망보다 딸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희생을 통해 남동생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가문의 복권과 재건에 이바지해야만 한다는 도덕 가치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에 있어 안즈노히메(安壽の姫)의 자사 희생은 가부장적 가족 윤리를 철저히 내면화시킨 딸의 효행이었기에 비로소 숭고한 가치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이야기 전개에 있어 그녀는 개성을 지닌 주체로서가 아니라 여성에게 요구되어진 도덕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담아내는 표상적 객체로서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야기 전개에서 안즈노히메(安壽の姫)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남동생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가문의 재건 및 복권의 의무를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이야 다유님이 우리를 집안 중 노비로 부르며 부리지만 일찍이 다테 고을 시노부에서 귀공자들과 귀부인들의 정월 첫 하례식을 잊지말거라(今こそは太夫殿、譜代下人と呼び使はるとも、いにしへ伊達の郡信夫の莊で、殿原たちじやうらふたちの、正月初の御礼の時の、式次第をば忘れさいな)」

위의 예문에서 누나는 남동생에게 비록 영락하여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할지라도 무사로서 자존과 품위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 또한 탈출 계획이 탄로 나고 남동생의 이마에 낙인을 새기려 하는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에게 누나는 「이는 치욕의 상처이니 두 개이든 세 개이든 내게 처벌하시고 남동생은 면하게 해 주십시오(これは恥辱の傷なれば、二つなりとも三つなりとも、自らにお当つて、弟は許いてたまはれの)」라고 하여 치욕적인 상흔에서 남동생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상, 서사 구조에 나타난 안즈노히메(安壽の姫)의 미덕은 강인한 현실 적응력, 무가의 자존감 수호, 도덕 이데올로기의 구현, 남동생을 대신한 자사희생 등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つし王丸— 집안 재건의 주체

4.1. 가문의 정체성 제시

다음으로는 이야기 전개에 나타난 아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었으나 살아계시다니 누님과 제가 길 떠나도록 허락해주세요. 상경하여 천황께 소령 안도의 어의를 받아 오슈 원 넷 고을의 주인 자리를 찾겠습니다, 어머님.(父は浮き世にござないかと思ひてござれば、父だに浮き世にましまさば、姉御やそれがしに暇を賜り候へ。

都へ上り、みかどにて安堵の御判を申し受け、奥州五十四郡の主とならうよ、母御様)」

위의 예문은 이야기의 모두 부분으로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온 쓰시오마루(つし王丸)가 어느 날 새삼스럽게 아버지의 부재를 인식하고 어머니에게 그 연유를 묻는 장면이다. 여기서 아들은 가문 재건의 당위성을 환기시키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렇듯 소령권 탈환을 둘러싼 아들의 강한 의지를 이야기의 출발점에 제시하는 것은 곧 보호와 안정이라는 어머니의 세계를 떠나 도전과 권위라는 아버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아들의 의도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구심점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2. 미숙에서 성숙으로

한편 이야기 전개에서 시종일관 미덕의 구현자로 조명되는 누나와는 달리 남동생은 일련의 고난을 겪으며 인간적으로 성숙해 가는 인물로 조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 ① 「나는 나무를 해 본 적도 없으니 당연히 나뭇짐을 질 수도 없소」
- ② 또 어제 그 장소에 서서 주변 사람들에게 동냥 나뭇짐을 해 받으려는 생각에 기다리고 계신다.
- ③ 누이의 살에 찍히는 낙인에 놀라 움찔움찔 뒷걸음질치며 달아난다.
- ④ (텐노지의 아자리)「이 젊은 사무라이는 둔세를 바라는가, 일자리를 바라는가」→(쓰시오마루)「일 자리를 바랍니다」
- ① 「それがしは刈つたることがござなければ、持つたることも候はず」
- ② まつたきのふの所へござありて、柴の勸進をしてたまはれかとおぼしめし、立ちやすらうておはします。
- ③ 姉御の焼き金に驚いて、ちりりちりりと落ちらるる。
- ④ (天王寺の阿闍梨)「これなる若侍は、遁世望みか、又奉公望みか」→(つし王丸)「奉公望み」

먼저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탈출 이전의 쓰시오마루(つし王丸)는 주변 사람들의 동정에 의지하려고만 할뿐 스스로 노동하려들지 않거나(예문 ①,②) 누나의 시련에 지레 겁먹는 나약함을 보인다.(예문 ③) 하지만 탈출 이후 주변인들이 그를 지칭하는 호칭이 꼬마(わっぱ)에서 젊은 사무라이(若侍)로 변화한 것이 말해주듯 그는 능동적이고 성숙한 판단력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인물로 변모한다.(예문 ④) 즉 가타리테(話者)는 쓰시오마루(つし王丸)의 현실적인 시련 및 극복을 정신적인 성장 과정과 오버랩시켜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들은 조정 출사, 황제의 총애, 누이의 복수와 진혼, 아버지의 복권, 어머니의 개안, 소령의 탈환 등, 일련의 활약을 통해 집안 재건을 이룩한 역량의 소유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5. 가족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

5.1. 제도권에 대한 순응

다음으로는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에 묘사된 마사우지(正氏) 일가의 흥망성쇠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족의 몰락은 천황의 명령에 의한 아버지의 유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남은 가족의 이별과 간난신고로 이어진다. 한편 가족의 재건 역시 쓰시오마루(つし王丸)에 대한 천황의 인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아버지의 사면과 가족 구성원의 재회를 통해 이룩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

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천황의 명령→마사우지(正氏) 유배→가족 구성원의 고난→가문의 해체
- 천황의 승인→마사우지(正氏) 사면→가족 구성원의 재회→가문의 재건

즉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에 나타난 마사우지(正氏) 일가의 재건 과정은 고스란히 일가 몰락 과정의 역순을 거쳐 이룩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작품에서 일가의 재건 및 복권은 등장인물의 영웅적인 무용이나 신불의 도움 등 이른바 권력 패러다임을 초월한 방법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권력 내지 제도권의 논리에 순응하고 이에 대한 지향을 통해 사회에의 재편입을 시도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5.2. 유대와 배제

가타리테(話者)는 가족의 해체와 집안 재건이라는 테마를 서술함에 있어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고정시키고 존재성에 차이를 둔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가문 존폐의 상징임과 동시에 가족 구성원 운명의 시원으로서 위치한다. 즉 이 작품에 있어 아버지란 ‘가족 공동체’의 운명 그 자체를 상징하며 그렇기에 남은 가족 구성원의 존폐는 곧 아버지의 정치적 복권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의 전개에 있어 남은 가족 구성원의 간난신고는 비단 생명 기원인 아버지를 향한 혈육의 정에 대한 그리움(『가루카야(かるかや)』)이나 아버지를 위한 추선 공양의 효행 실천(『마쓰라노초자(まつらの長者)』)이라는 동인과는 달리 아버지의 정치적 복권 내지 제도권의 재편입이라는 과제의 완수와 이를 위한 일련의 대속적 의미를 지닌다. 한마디로 이야기 전개에서 가부장은 가정 내의 부재로 인하여 오히려 가족 구성원에게 있어 더욱 강력한 삶의 구심점이자 지향해야할 절대 가치의 위상을 지니며 그네들의 운명을 구속하고 있다.

한편 아들은 생존과 출세를 통하여 아버지의 복권과 집안 재흥을 달성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 경우 친아버지의 부재를 보완해주는 인물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의 추격으로부터 쓰시오마루(つし王丸)를 보호하여 그의 목숨을 구해주고 업어서 서울까지 데리고 온 고쿠분지의 스님(國分寺の聖), 그리고 쓰시오마루(つし王丸)를 양자로 삼아 조정 출사의 길을 마련해준 무메즈노인(梅津の院) 등은 친아버지의 부재로 후견인 하나 없는 아들의 생존과 출세를 비호하는 이른바 의제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자간의 유대와 가문 재건은 딸의 자사희생과 어머니의 소외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모녀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버지라는 절대 위상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고자한다. 하지만 딸은 자사희생의 도덕률에 구속당하고 어머니 역시 무능력과 비천이라는 사회의 차별에 구속당함으로써 가문 재건의 주체적 존재가 되지 못한 채 단지 진혼과 구제의 대상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셋쿄(説経)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의 가족 해체와 집안 재건의 서사 구조를 가족 구성원의 역할 및 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작품에 나타난 이른바 ‘가족 이데올로기’의 양상과 그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야기 전개에 있어 가족 구성원의 간난신고는 가문 존폐의 상징인 아버지의 정치적 복권 및 제

도권의 재편입이라는 과제의 완수와 이를 위한 일련의 대속적 의미를 지닌다. 즉 작품에서 ‘가문(집안)’이란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지켜내고 이어가야 할 절대 가치이자 존재 이유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테마를 서술함에 있어 가타리테(話者)는 ‘부모의 무기력과 자녀의 효행’을 논의의 중심 축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이야기의 초점은 아버지의 과실과 어머니의 무능력이라는 결핍 상황에 직면하여 여아라는 선천적 핸디캡을 지닌 딸과 후견인을 갖지 못한 아들은 각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절망을 극복하고 몰락한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가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요컨대 두 남매가 완성하는 효의 성질, 바꾸어 말하면 그네들에게 기대되는 이상적인 효행 언설이 셋쿄(說經) 『산쇼다유(さんせう太夫)』의 가족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岩崎武夫(1973)『さんせう太夫の構造』『さんせう太夫考』, 平凡社, pp.31-95
- _____(1980)『禁忌の世界—說經から近松へ』日本文學誌要23卷, pp.20-32.
- _____(1995)『受難と再生の語り』日本文學誌要52卷, pp.8-19.
- 鳥居明雄(1994)『再會のトポロジー』『漂泊の中世』ぺりかん社, pp.21-117
- _____(1999)『贖罪の中世』ぺりかん社.
- 室木弥太郎(1977)『說經集』新潮日本古典集成. pp.81-152
- 廣末保(1988)『漂泊の物語』平凡社.
- 小林美和(1994)『語りの中世文芸』和泉書院.

要 旨

説経『さんせう太夫』は地方武士一家の没落と再興の様相を本地譚の構成で綴った作品である。ところで語り手は家族の解体と家の再繁盛というテーマを語るにあたって家族構成員の役割を固定し、その存在性に差をつけている。したがって本稿では『さんせう太夫』の構造を家族構成員の役割および位相を中心に眺め、作品に現れたいわゆる「家族イデオロギー」について考察した。

話の展開において家族構成員の艱難辛苦は父の正氏の政治的な復権ないし制度権への再進入という課題の達成とそのため代贖の意味を持つといえる。すなわち、彼らにとって「家」とはどんな犠牲を拂ってでも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絶対的な価値であり、かつ自分の存在理由である。

一方、語り手はこのような主題を「親の無能力と子の孝行」の対比を通して明らかにしている。言い換えれば『さんせう太夫』の話の焦点は父親の過ちと母親の無能力という不幸を前にして、女兒という先天的なハンディキャップをもつ娘と後見人を持たない息子はそれぞれいかなる方法をもってこの不幸を乗り越え再び家を再繁盛させるかに当てていると思われる。要するに説経『さんせう太夫』の家族イデオロギーは姉弟の成し遂げる孝行の内容、つまり彼らに期待される理想的な孝行の言説に基づいてい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存在性、家族の解体、家族イデオロギー、代贖、孝行、再繁盛

투 고 : 2004. 8. 31
1차 심사 : 2004. 9. 11
2차 심사 : 2004. 10. 2

住 所: (443-72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 주공 아파트 839-702
電 話: 011-9782-4422

E-mail : hufs84@hanmail.net

KCS I